



레위기

25장 헤세드) 희년, 고엘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룯기

1장 나오미와 룯의 유다 귀환

2장 룯과 보아스의 만남

3장 룯이 보아스를 찾아감

4장 보아스와 룯의 결혼

참고도서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WBC,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다시 일어서는 목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온 법 즉, 동해보복법입니다(Lex Talionis, 同害報復法).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로마 십이표법에 언급되며,

성경에는 신명기 19:2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언뜻 기독교 정신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구약성경에 언급된 이 구절은 <약자보호법>입니다.

신분과 소유에 따른 차별이 지금보다 더 만연했던 당시에는

강자가 약자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를 훼손해도

제대로 된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질적 보상으로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인종, 연령, 성별, 소유, 능력의 정도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 눈/이/손/발이 소중하듯 저의 눈/이/손/발도 소중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이 담겼습니다(레25).

사람과 생명에 대한 관심, 아파하고 공감하며,

도울 방도를 찾기 위해 함께 고생하며 땀 흘려주는 사랑.

하나님의 법에는 <헤세드: 은혜, 자비, 인애> 정신이 담겼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점점 늘어가고,

각각의 소중한 생명들이 집계된 숫자로 취급되는 시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5:55)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오미와 룯을 돌보십니다.
룯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룯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2:7-9).
헤세드는 법적 의무가 없이 베푸는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입니다.
룯은 예상치 못했던 보아스의 관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룯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2:11-12).”

룯이 꼭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르바의 결정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룯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룯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룯기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기업 무를 자(고엘)입니다(레25:23-55).
가족 중 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게 될 형편이나, 재정적 이유로 종으로 팔리게 된 경우,
죽음이나 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거나 피의 복수를 하게 한 제도입니다.
치안이나 보장체계가 견고하지 않던 시절,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돌봄 제도였습니다.

보아스는 룯의 기업 무를 자(고엘)로 나섭니다.
룯은 더 이상 이방여인이거나 종, 남이 아닙니다(2:13). ‘가족’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룯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으로 여깁니다.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3:11).
룯은 보아스의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권리와 주권과 자유를 인정받은 것입니다(잠31).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자비, 인애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흥년의 인생(1:1), 빈 손 인생(1:21)이 된 나오미와 룯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룯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를 주셨습니다(4:15)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함께 방도를 찾으시며, 결국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4:13-17).

하나님과 룯, 보아스의 <헤세드 챌린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확장됩니다(4:17-22).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로 대우 받습니다(롬8:14-15).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빈 손 인생, 흥년인 인생, 방도 없던 인생을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헤세드 챌린지>의 다음 도전자로 지목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습니다.